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에 대한 논평

최 준 식

(이화여자대학교)

이번 종교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증산교 계통 논문에 대한 논평을 부탁받았을 때 그동안 나름대로 증산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나는 이번 학회 주제에 대한 증산선생의 의견이 분석되는 논문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에 들어온 논문은 증산사상 전체를 통괄한다기 보다는 대순진리회에서 해석한 증산사상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이점에 저르기 당황했고 증산사상 전체에 나타난 교육사상을 들을 수 없어 안타깝기도 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첫번째 들었던 의문은 바로 위의 생각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논자는 증산사상의 중심을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순사상으로 잡고 그 대순사상에 비추어 후천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인존사상에서 찾으려 했다. 그런데 문제는 증산사상의 핵심을 대순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대순진리회에서는 그렇게 해석했고 이 논문은 대순사상에 대한 것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것이 증산사상의 핵심이라는 데에는 마음놓고 옹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문제에 비하면 다른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논자에 의하면 ‘대순’이라는 종교용어는 “(증산이) 天, 地, 人 三界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돌때 정황을 살피고 연구하여 종교적 구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구체적 종교 行儀”라고 정의되는데 무엇보다도 마지막 단어인 행의가 이해되지 않는다. 행의라는 종교학적 용어는 원래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용어로 생각되는데 그런 까닭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어서 논자는 대순이라는 종교행위는 대순사상의 핵심인 천지공사의 기초작업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왜 증산사상의 핵심을 천지공사로 잡지 않고 대순사상이라고 잡았

는지 의문스럽다.

다시말해 천지공사안에 대순이념이 포함될 수는 있어도 대순이념안에 천지공사가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산의 교육사상을 논하고자 할 때 들고 나와야 되는 사상은 천지공사이념이 아닌가 싶다. 조금 논지를 더 전개해본다면 천지공사의 핵심사상은 해원사상이니 증산의 기본사상은 일반상식처럼 되어 있는 해원사상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 해원사상을 중심으로 증산의 교육사상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또 논자는 “대순은 종교적 각성을 한 증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삼계를 두루 살핀 대순의 내용끝에 증산은 성혼을 통하여 현신이 되는 종교적 성현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루마니아의 종교학자였던 엘리아데의 냄새가 너무 짙게 풍긴다. 그런데 우리 종교를 설명할 때 굳이 엘리아데의 이론을 동원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든다. 그런 까닭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나오는데 가령 “성혼을 통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성스러운 결혼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 논문에는 또 논자가 증산을 개인적으로 신봉하는 교인인 관계로 신앙적인 서술이 나오는데 이것은 논문에 게재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은가 싶다. 가령 천지도수의 조정은 “초신명적이며 초인간적인 존재자에 의한 역사(役事)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논자는 말하는데 이러한 묘사는 명백히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증산의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은 제 삼자는 무슨 말인지 모를 것으로 생각된다. 또 천지도수라느니 신명이니하는 증산적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서술일 것이다. 논문이라는 것은 누가 쓰던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바를 제 삼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고 객관적으로 써야 하는데 신앙에 관계되는 논문들은 종종 이 법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순사상의 교육사상을 논하는 가운데 논자는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교육은 미완으로 인한 나의 미숙을 청산하고 본래의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다시 말하면 미성숙상태의 일상적 자아의 모습에서 각성이라는 정신적 눈뜸의 과정을 통하여 본래적 자아에로의 상달을 찾는 길”이라 했는데 이 문장도 썩 납득이 되는 문장이 아니다. 대순사상은 증산이 이 땅에 강림하기 위해 지구를 몇바퀴 돌았다는 것일진대 그것이 교육사상과 무슨 관계가 되는지 연결이 잘되지 않는다. 또 본래적 자아를 말하는데 증산사상에서 보는 본래적 자아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기만 하

다.

전체적으로 볼때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대순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됐으나 그것이 교육사상과 연결되어 증산사상의 교육사상이 드러나는 데에는 좀 더 많은 전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